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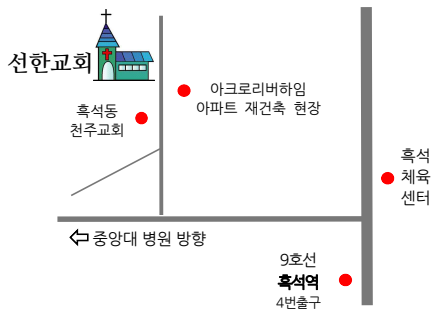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4:00	청 년 부	오전 1:00 드보라회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영 어 예 배	오전 3:30 에스더회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교 육 목 사 권 인 혁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이금주 (미국)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국내선교사(협력)	한 배 선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장 로	조 윤 익 (집사장)	500/50 교 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김 대 희		(2호) 세종 선한교회
	박 희 태		신원섭 목사
	유 신 웅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딤후 2:1)

Be Strong In The Grace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기도회 참석 서로 돌아보기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2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40장 (통일찬송가 43장)	
교 독 문	교독문 14번(시편 24편)	
찬 양 과 경 배	210장 (통일찬송가 245장)	
예 배 기 도	유신웅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예배소서 2장 19~22절	
설	교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허정미 김계모 김은정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는 믿네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셀가족 모임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씬 봉 독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 1장 1-9절)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후 예 배 안 내

오늘 오후예배는 셀가족모임으로 대신합니다.
- 금 요 기 도 회 안 내

이번주 금요일(4일)은 총동원 금요기도회로 드립니다.
 일시 : 5월 4일(금) 저녁 8시 30분
 이번주 총동원 금요기도회는 전부서기도회로 모입니다.
 다음주(11일) 금요기도회 인도는 1남전도회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 삭 새 벽 예 배

일시 : 5월 1일(화) 새벽 6시, 주관 : 과천셀
 6월 1일(금) 월삭새벽예배 주관은 분당셀입니다.
- 제 직 회

다음주 주일(6일)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 체 육 예 배

5월 13일(주일)은 체육예배로 드립니다.
- 예 배 준 비 안 내 및 정 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산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관악셀**입니다.

5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5월 6일	교회론 3강	임춘배 담임목사
5월 13일	체 육 예 배	다 함 께
5월 20일	교회론 4강	임춘배 담임목사
5월 27일	교회론 5강	임춘배 담임목사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8년 성경강론 범위						
4/29	4/30	5/1	5/2	5/3	5/4	5/5
	열왕기하 25장	역대상 1장	역대상 2장	역대상 3장	역대상 4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은혜를 담임목사님 위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가정예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찬송 : ‘나 말은 본분은’ 595장(통 372장)
본문 : 사도행전 2장 42~47절

말씀 :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가정교회로서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됩니다. 이 공동체는 온전한 구원 사역에 힘쓰는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 된 새로운 종류의 가족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집으로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공동체입니다(42절). 교회는 안팎으로 혼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며 기도와 말씀에 바로 서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교회여야 합니다(45절).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은 먼저 자신을 나눠 주는 것에서 출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나눠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채우는 나눔입니다. 교회는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심으로 죄인 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생명 같이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 증가에 박차를 가하는 공동체입니다(4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을 증가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 사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고치고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 것을 나누어서 세상 사람을 향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전념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로 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시대입니다. 소통이 끊기고 함께 교감하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무정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된 우리는 하나님 집으로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생명 살리는 공동체로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백성을 살리고, 공동체로서 사회를 살리며, 공동체로서 세상을 살리는 참 구원의 방주가 돼야 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집,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은혜의 말씀

제목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엡2:19-22)
서론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본론	1. 새사람 새변화 (1) 그리스도인의 신분: 성도, 시민, 권속 (2)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 (3) 그리스도인의 성장: 함께 지어져 감 2. 교훈 (1)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 (2)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교회를 세워가자. (3)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자.
결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어나갑시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유신용 장로	조윤익 장로
헌 금 위 원	허정미 김계모 김은정	정영기 조계승 지영
오후예배 기도	셀가죽모임	장수정
안 내	안산셀	관악셀

매일 성경 강독		무너진 예루살렘 사라진 영광	날짜 : 4월 30일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통일 찬송가 482장)		
통독	열왕기하 25장		
본문 내용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반역을 다스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성안에 기근이 심해졌고, 시드기야는 성을 벗어나 도주하다가 생포되어 고통을 당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은 그달리야를 세워 유다 땅을 관할하게 합니다. 그러나 왕족 이스마엘 일행이 그달리야를 죽이고 갈대아 사람도 죽입니다. 한편 유배 중이던 여호야킨은 37년 만에 바벨론에서 회복을 누립니다.		
생각해보기			
1	예루살렘 함락 (1) 북이스라엘 멸망후 약140년 가까이 존속해 오던 남유다 왕국도 드디어 BC.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역사의 종지부를 찍음 (2) 이미 2차례 걸친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풍전 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던 유다 왕국은 시드기야왕이 취한 반 바벨론 정책으로 인해 다시 제3차 침공을 당하고 1년6개월 동안 저항했지만 결국 함락되고 시드기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 (3) 이미 2차례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약탈당했고 3차에도 남아 있던 놋 그릇과 놋 기둥까지 모조리 약탈당하고 성전은 폐허로 변함 (4)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은 백성중 '비천한 자'(12절)만 남겨두고 그달리야를 총독으로 임명하였고 반감을 품은 사람들은 그달리야를 죽인후 애굽으로 피신했 (5) 느부갓네살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월므로닥이 왕이 되었을 때 끌려간 여호야킨이 석방됨 (6)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시127:1).		
핵심 단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 이는 언약 체결시 하나님으로부터 단순호 보호의 약속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결코 무조건적인 보호만을 언급하지 않으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이행할 때 그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지만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란 약속도 분명하게 주셨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끝없이 악을 행하는 남유다를 심판하신 사실은 언약에 대한 그분의 불성실한 면모를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를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하나님의 구원 초대”
찬양과 기도	내 갈급함 /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통 411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소위 말하는 ‘얕은뱅이’가 되어 초등학교 입학도 못하고 열한 살이 될 때까지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냈던 어린아이,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셔서 “인강이를 갖다 버려”라고 어머니를 괴롭히는 아버지에게서 큰 상처와 공포에 시달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자로서 무한차원이신 하나님을 「기쁨 공식」으로 풀어 낸 고등과학원(KIAS)의 김인강 교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납득할 수 없었던 그가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예수님을 알게 되어 삶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다는 것과 “왜?”에 대한 대답은 오직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라는 말씀이 자신의 존재론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 번에 고쳐 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그 섭리를 받아들이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김인강 교수의 긴 광야 시간은 눈물 골짜기에서 마침내 기쁨의 샘물을 길어 나눠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경험한 눈물의 골짜기와 기쁨의 샘물은 어떤 것인가요?	
말씀 나누기	이사야 55:1~13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며, 모두를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그분께 나아오는 자는 값없이 좋은 것을 먹으며 만족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생명과 복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지혜롭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크고 비밀한 복을 경험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대상은 누구인가요?(1절) 영혼이 사는 비결은 무엇이며, 영원한 언약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나요?(3절)	
적용하기	요즘 내가 느끼는 영적 목마름은 어떤 것인가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영적으로 갈급할 때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르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아집으로 번민하던 삶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참평강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유다와 시므온	날짜 : 5월 4일
찬양	주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289장/통일 찬송가 208장)		
통독	역대상 4장		
본문 내용	1-8절은 유다의 넷째 아들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의 아들들에 관하여 2장을 보완해 주고 있다. 특별히 이 부분은 헤스론의 셋째 아들 갈렙의 손자들인 훌의 네 아들과 헤스론의 다섯째 아들인 아스홀의 여덟 지파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 9-20절은 유다의 여덟 방백들, 곧 야베스, 글롭, 그나스, 여할렐렐, 에스라, 호야다, 시몬과 이시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헤스론의 자손들로 분류될 수 있는 반면에, 헤스론에 대한 그들의 정확한 관계는 에스라가 갖고 있는 자료의 결함 때문이거나 아니면 계속되는 필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서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21-23절은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의 아들들을 요약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1) 1-3장까지 다윗가문을 중심한 선민의 계보를 밝히는데 이어 4-8장까지는 12 지파별 족보를 소개함 (2) 4장에서는 유다 지파에 족보에 소개되지 않았던 또 다른 후손들의 이름을 소개함 (3)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의 복을 받은 야베스(9,10), 이스라엘의 첫 사사였던 옷니엘(13), 담대한 신앙을 가져 가나안 땅을 얻은 갈렙(15),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취한 메렛(18)등 (4)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면서(24-43) 그들의 기업을 확보하기 위한 영토 정복 사업을 언급함 (5)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		
핵심 단어	3장 에서부터 8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인 이스라엘 곧 야곱의 열두 아들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이르는 선민의 주요 계보를 그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소개한다. 그런데 이는 완전한 계보라기보다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요 인물의 명단을 제시한 발췌 계보이다. 여기서 역대기 기자가 야곱의 열두 지파의 족보를 새삼 언급하는 것은 사라진 북왕국의 열 지파들을 포함하여 언급하기 위함인데 이는 그들도 야곱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은 그들도 이스라엘 가운데 본래 포함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선민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그들이 이방에 뿔뿔이 흩어졌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하나님의 언약하에 보증된 것이므로 결코 그것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창조로부터 회복까지	날짜 : 5월 1일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송가 570장/통일 찬송가 453장)		
통독	역대상 1장		
본문 내용	본문은 아담으로부터 노아와 그 아들들까지 족장들의 계보(1:1-4), 노아의 아들들, 함, 야벳, 셈의 계보(1:5-23),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장들이 계보(1:24-27),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계보(1:28-34), 에서와 세일의 후손들(1:35-42), 에돔의 왕들(1:43-50), 에돔의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1:51-54)		
생각해보기			
1	선민계보의 시작 (1)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후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축복과 사랑을 회고시킴 (2) 다윗 언약을 맺은 다윗 왕가의 왕들을 중심으로 또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여호와께 순종할 때에는 축복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패망이 있었다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사를 개관함 (3) 역대기 1-3장까지는 포로기까지 이어진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선민의 계보를 소개함 (4) 1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후손들, 셈에서 아브라함 야곱의 족보들을 나열함으로 선민 역사의 흐름의 시작을 보여줌 (5)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계속 되어진다.		
핵심 단어	1:3 에녹 - ‘에녹’으로 음역된 ‘하노크’는 ‘창시하는’, ‘시작된’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며, ‘전수자’ 혹은 ‘선생’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의인이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다. 또한 유 1:12의 기록에 의하면 에녹은 그 시대에 예언자로서 사역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에녹은 그의 이름의 뜻에 걸맞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었으며,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세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참된 삶을 가르치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유다에서 다윗까지	날짜 : 5월 2일
찬양 통독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찬송가 545장/통일 찬송가 344장) 역대상 2장		
본문 내용	열두 아들들 가운데 레아의 소생은 루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블론이고,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중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중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다(창35:23-26).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을 말한 후, 유다 지파를 먼저 말하고 있다. 이것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형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 약속 되어 있기 때문이다(창49:8-10). 유다가 다말에서 낳은 베레스의 아들을 말한 후 두 번째 아들 세라의 가계를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가계를 말하고 있다. 헤스론은 여라므엘과 람과 글루배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또 다시 람을 택하셨다. 그러므로 베레스의 세 사람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위한 가계는 람을 통해 이루어졌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았다. 그리고 이새는 일곱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낳았다. 이새가 낳은 일곱 아들 가운데 다윗은 일곱째 아들이다. 25절부터 55절까지는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므엘의 가계를 말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유다에서 다윗까지 (1) 에서를 대신하여 언약 백성의 정통 계보에 오르게 된 야곱(이스라엘)의 12 아들을 소개함 (2) 12지파중 장자 르우벤이 아닌 유다 후손의 족보가 언급되고 유다의 손자 헤스론이후에 헤스론의 장자인 여라므엘보다 다윗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동생 람을 우선적으로 언급함 (3) 다윗의 가문은 아니지만 헤스론의 계보(18-41)와 헤스론의 아들 갈렙(여분네의 아들 갈렙과는 동명이인)의 계보(42-55)를 소개하는 것은(9절이후) 남부 유다의 중요 성읍들을 개척하여 이스라엘 왕국 건설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4) 다윗왕의 조상들의 계보를 볼 때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혈통이나 공로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볼수 있다.		
핵심 단어	2:1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 이스라엘의 족보가 시작되는 2장의 1,2절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기술하며, 3-17절은 유다로부터 다윗까지의 인물들을, 18-41 절까지는 헤스론의 자손들을, 그리고 42-55절은 갈렙의 자손들을 각각 기록한다. 그 중에서 1,2절은 9장까지 기술되는 이스라엘 족보의 서두가 되는 부분이다. 즉 앞선 1:4에서 기술된 노아의 세 아들이 이후 1:5-23에 소개되는 세상 열국의 족보 각 부분의 시발점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술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명단은 단과 스블론을 제외하면 이후 9장에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보 각 부분의 시발점이 된다. 이러한 족보를 열어가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의미를 가졌으며,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얻은 야곱의 새 이름이다. 저자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란 변경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임을 강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다윗과 솔로몬	날짜 : 5월 3일
찬양 통독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통일 찬송가 502장) 역대상 3장		
본문 내용	다윗이 헤브론에 거한 년 수는 칠년 육 개월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여섯 명의 아내를 통하여 여섯 명의 아들을 얻었다. 그들 중에 압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함으로 압살롬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함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아도니아는 솔로몬과의 왕권 투쟁에서 패함으로 후에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도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이처럼 헤브론에서 얻은 여섯 명의 아들들 중에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없다. 그 후로 기록된 이름들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유다 왕들의 이름들이다. 17절에서 요시아의 네 아들을 말하고 있다. 여기 살롬은 여호아하스의 왕명(王名)이다(렘22:11, 대하36:1-4, 왕하23:31-34).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넷째로 표기한 것은 그의 치리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소개된 요하난에 대해서는 본문 외에 언급이 없는데 학자들은 그는 어려서 죽은 자일 것이라고 말한다.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말한다. 요시아의 아들 가운데 사룸,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고, 그들 가운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여고냐)이 유다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다. 그는 바벨론에 항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은 그를 포로로 잡아갔다.		
생각해보기			
1	다윗의 계보 (1) 다윗의 아들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들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들로 구분해 놓은 것은 바로 두 성읍이 다윗왕의 통치 중심지였기 때문 (2) 다윗의 아들들중 밋수아 즉 밋세바에게서 태어난 나단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직계 조상이 되고(눅3:23-41) 솔로몬은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 요셉의 직계 조상이 됨(마1:1-16) (3) 다윗의 왕위를 이어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까지 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20명의 왕들의 이름이 언급됨 (4) 유다 왕국의 멸망이후 다윗 가문의 족보도 계속 기록함으로 다윗의 계보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메시아가 오실때까지 계속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줌 (5)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에 대해 철저하고 성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핵심 단어	3:1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 2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족보 가운데서도 다윗왕가를 배출한 헤스론 계열의 계보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헤스론 가문 중에서도 다윗을 출발점으로 하여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다윗 왕가의 계보를 다루고 있다. 즉 본장은 앞선 2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약속받은 유다 지파에 초점을 맞춘 이후 이어 본장에서는 다윗 왕가의 계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다의 후손을 통한 이스라엘의 통치를 예언한 야곱의 유언의 구체적인 성취가 구약 내에서 다윗에게서 일차적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